

---

#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박 병 원(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bahk0924@yahoo.co.kr

1. 농업의 기업화
2. 한국 농업의 현실
3. 한국 경제의 현실
4. 한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
5. 결론 : 농업의 기업화의 진정한 의미



##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1. 농업의 기업화

#### □ 농업의 기업화의 진정한 의미는?

- 2000년대 들어 정부는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04.6)」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09.1)」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은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농업관련 세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농업의 전문화·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성장을 견인하고, 농업회사법인 규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업의 의미
  - ‘기업’에는 개인, 조합, 법인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주식회사만 법인 기업이 아니며, 대기업만 법인 기업인 것도 아니다.
- 농업의 기업화는 농협의 경제사업부문 강화, 품목 조직화, 영농규모의 확대 등 다른 농정 과제들을 모두 묶어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기업, 경영이란 무엇인가?

- 생산물(재화,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경영이다.
- 어떤 질의 재화를 어떤 양에 얼마나 생산하면 다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는가를 예측, 설계하는 것이 기업의 출발점이다.
- 기업은 자본(토지 포함), 기술, 노동을 결합해서 실제 생산을 수행한다.
  -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다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 4 농정의 우선 순위는?

- 이와 함께 시장을 창조, 개척하고 생산물을 팔아 낼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자본, 기술, 노동, 마케팅 능력(브랜드 파워 포함) 등을 결합하여 이 전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경영이다.
- 시장에 참여한 각 경제주체들은 각자 자기가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져간다. 다만 이제는 토지와 노동만을 가지고 하는 농사로서는 더 많이 벌 수가 없는 것이다. 농사가 아니라 농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 2. 한국 농업의 현실

- 한국 농업은 국제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우리 농산물만으로는 결코 먹고 살 수가 없는 식량자급이 안 되는 나라이다.
- 2015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 식량자급률은 50.2% 수준이다(표 1).

표 1. 우리나라 곡물 소비 및 생산 추이

단위: 천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p)
곡물 총소비(A=B+C)	8,825	12,596	16,282	19,961	19,939	20,251
사료용 외 소비(B)	8,241	10,124	9,981	10,676	10,196	9,583
사료용 소비(C)	584	2,472	6,301	9,285	9,743	10,668
국내생산(D)	7,097	7,048	7,013	5,931	5,511	4,810
곡물자급률(D/A)	80.4	56.0	43.1	29.7	27.6	23.8
식량자급률(D/B)	86.1	69.6	70.3	55.6	54.1	50.2

주 : 1. 곡물 자급률은 국내 총소비량 대비 국내생산량 비중이며, 식량자급률은 국내소비량(총소비에서 사료용 소비 제외) 대비 국내생산량 비중임.

2. 2015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연도

표 2. 전세계 곡물 소비 추이

단위: 백만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곡물 총소비	1,229.9 (100.1)	1,651.3 (100.0)	1,946.4 (99.9)	2,172.0 (100.1)	2,610.8 (100.0)
식용	528.6 (43.0)	667.2 (40.4)	839.7 (43.1)	970.2 (44.7)	1,084.8 (41.6)
사료용	455.8 (37.1)	594.0 (36.0)	654.4 (33.6)	701.0 (32.3)	765.2 (29.3)
기타	245.5 (20.0)	390.1 (23.6)	452.4 (23.2)	500.8 (23.1)	760.8 (29.1)

주 : 1. 곡물은 FAO 기준에 따른 밀, 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기장, 사탕수수, 기타 곡물임.  
 2. 식용은 식용(food)과 식용가공(food manufacturing)을 합한 수치임. 기타는 식용과 사료용을 제외한 소비량임.  
 3. ( )안은 곡물 총소비 대비 비중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Food balance sheet

표 3. 전세계 주요 곡물 종류별 소비 추이

단위: 백만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옥수수 총소비	305.7 (100.0)	494.0 (100.0)	556.1 (100.1)	691.1 (100.0)	965.8 (100.0)
식용	52.8 (17.3)	73.2 (14.8)	106.0 (19.1)	130.8 (18.9)	160.8 (16.6)
사료용	196.6 (64.3)	299.4 (60.6)	301.8 (54.3)	405.0 (58.6)	470.3 (48.7)
기타	56.3 (18.4)	121.4 (24.6)	148.3 (26.7)	155.2 (22.5)	334.7 (34.7)
밀 총소비	385.4 (100.0)	532.8 (100.0)	656.4 (99.9)	728.1 (100.0)	817.4 (99.9)
식용	208.9 (54.2)	285.6 (53.6)	357.2 (54.4)	423.0 (58.1)	451.5 (55.2)
사료용	71.7 (18.6)	86.1 (16.2)	118.4 (18.0)	101.1 (13.9)	109.1 (13.3)
기타	104.7 (27.2)	161.2 (30.2)	180.8 (27.5)	204.0 (28.0)	256.9 (31.4)
쌀 총소비	212.8 (100.1)	272.5 (100.0)	350.3 (100.0)	418.5 (100.0)	493.1 (100.0)
식용	173.2 (81.4)	219.1 (80.4)	285.5 (81.5)	325.7 (77.8)	370.7 (75.2)
사료용	9.1 (4.3)	13.4 (4.9)	17.5 (5.0)	26.7 (6.4)	33.1 (6.7)
기타	30.6 (14.4)	40.1 (14.7)	47.3 (13.5)	66.1 (15.8)	89.2 (18.1)
보리 총소비	134.4 (100.0)	174.5 (100.0)	190.7 (100.0)	163.8 (100.0)	168.1 (99.9)
식용	23.2 (17.2)	25.6 (14.7)	27.3 (14.3)	28.8 (17.6)	33.2 (19.7)
사료용	84.6 (63.0)	113.1 (64.8)	120.3 (63.1)	90.1 (55.0)	86.3 (51.3)
기타	26.6 (19.8)	35.8 (20.5)	43.2 (22.6)	44.9 (27.4)	48.6 (28.9)

주 : 1. 식용은 식용(food)과 식용가공(food manufacturing)을 합한 수치임. 기타는 식용과 사료용을 제외한 소비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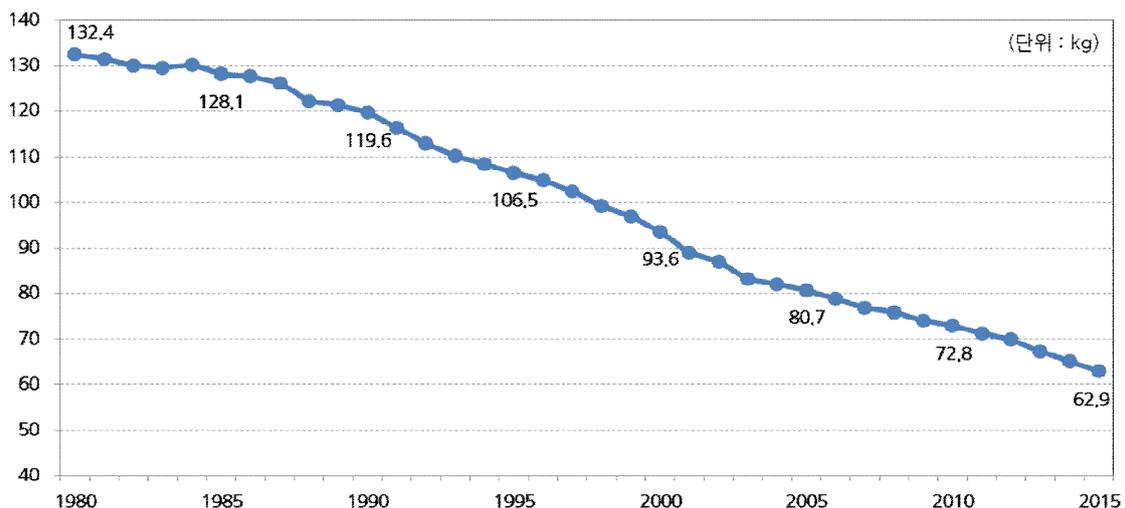
2 ( )안은 곡물 종류별 총소비 대비 비중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Food balance sheet

## 6 농정의 우선 순위는?

- 일부라도 먹거리를 수입하는 한,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입에는 관세를 낮게 해 줄 수밖에 없는 한(할당관세), 그 만큼 국제경쟁에 노출된다.
  -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로 우리 농산품 1,531개 품목 중 약 37%는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나머지 품목(쌀 등 일부 품목 제외)은 일정기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는 상호 경쟁한다.”, “쌀이 쌀과만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수입하는 한 먹거리 간의 교차경쟁은 벌어진다.
- WTO 가입, FTA 체결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수입농산물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뜻이다. 그 이전에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그림 1).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132.4kg에서 1995년 106.5kg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62.9kg으로 줄어들었다.
  -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규모화, 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공급되는 (수출도 가능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쌀의 가장 큰 대체재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과연 국산인가?)
  -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더 많이 먹게 된 야채, 과일도 쌀의 수요를 잠식했다.

그림 1. 우리나라 1인당 쌀소비량 추이



자료: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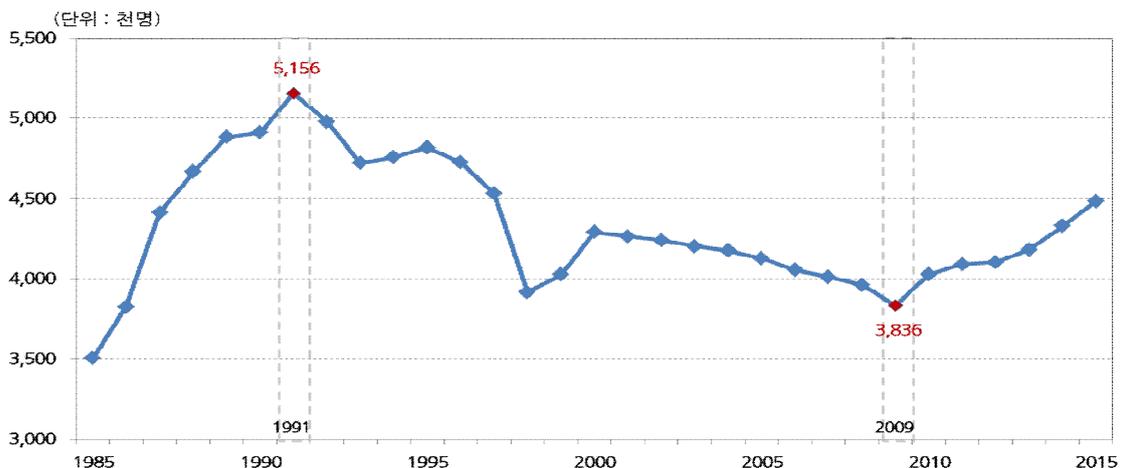
- 무엇보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리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다.

### 3. 한국 경제의 현실

□ 현재 한국 경제는 총체적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직면해 있다.

- 수요는 주로 젊은이들이 취직, 결혼,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 2016년 9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9월 수치로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09만명('16.8월)으로 청년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5~39세 인구 중 미혼자 비율은 1980년 13.7%에서 2010년 44.2%로 증가하였다(통계청, 인구총조사).
- 부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내수부진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1992년 이후 제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그림 2).
  - 우리 제조업은 1992~2015년간 67만개(연평균 2.8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1992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132만개(연평균 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그림 2. 제조업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또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도 벽에 부딪쳐 있다.

## 8 농정의 우선 순위는?

- 특히 일부 서비스업(자영업 중심의 소매업, 음식적, 운수업 등)은 지독한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고급 서비스업(금융, 의료, 관광 등)은 농업 못지않게 국제 경쟁력이 없어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다.
- 우리 경제는 이제 제조업 한 바퀴만으로는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 4. 한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

### 1) 우리 농업도 수출을 해야

#### □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기회 : 수출로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 가?
  - 매년 중국인 600만명씩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다면 13억 7천만명의 중국인이 1인당 한 번씩 한국에 관광을 오는데 약 230년이 걸린다.
- 중국의 최상위 5% 부자들의 시장만 공략해도 시장 규모가 7,000만명에 달한다. 이런 중국 부자들의 시장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보다 크다.
- 중국은 농산물 수입국이다.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 중국의 과일, 채소 수입도 물량 기준으로는 1970년 73.3만톤에서 2013년 1,570.6만톤으로 21.4배로 증가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970년 1억 2,500만불에서 2013년 132억 2,200만불로 105.6배로 급증했다(표 4).

표 4. 중국의 과일, 채소 수입 추이

단위: 천톤, 백만불, 불, 배

	1970(a)	2000(b)	2013(c)	b/a	c/a	c/b
물량(천톤, ①)	733.4	3,939.2	15,706.3	5.4	21.4	4.0
금액(백만불, ②)	125.2	2,483.0	13,216.5	19.8	105.6	5.3
②/①(톤/불)	170.7	630.3	841.5	3.7	4.9	1.3(33.5%)

주 : ( )안은 2000년 대비 2013년 1톤당 금액의 증가율임. 즉 2000년 630.3불에서 2013년 841.5불로 33.5% 증가했다는 의미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 중국의 쌀 수입은 2000년 57.8만톤에서 2013년 271.8만톤으로 370.2% 증가했다(표 5).

표 5. 중국의 쌀 수입 추이

단위: 천톤, 백만불, 불, 배

	1970(a)	2000(b)	2013(c)	b/a	c/a	c/b
물량(천톤, ㉠)	366.6	578.4	2,718.1	1.6(57.8%)	7.4	4.7
금액(백만불, ㉡)	60.2	275.5	1,470.9	4.6	24.4	5.3
㉡/㉠(톤/불)	164.2	476.3	541.2	2.9	3.3	1.1(13.6%)

주 : ( )안은 1970년 대비 2000년 쌀 수입물량, 2000년 대비 2013년 1톤당 금액의 증가율임. 쌀 수입물량은 1970년 대비 2000년에 57.8% 증가, 쌀 1톤당 금액은 2000년 대비 2013년 13.6% 증가했다는 의미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표 6. 2015년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상위 10개)

단위: 억불, %

	수입금액 (비중)
<b>2015년 농산물 수입 총액</b>	<b>1,159.2 (100.0)</b>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 식물, 볏짚과 사료용 식물	397.5 (34.3)
곡물	92.8 (8.0)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제품	78.9 (6.8)
수산물	63.2 (5.5)
낙농제품, 조란, 벌꿀, 기타 식용 동물성 제품	62.0 (5.4)
식용과일 및 견과류	60.1 (5.2)
가축육 및 식용설육	58.7 (5.1)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폐기물, 동물 배합사료	44.3 (3.8)
음료, 주류 및 식초	42.8 (3.7)
식용 채소	26.2 (2.3)

자료 : 중국 상무부

## 2) 제조업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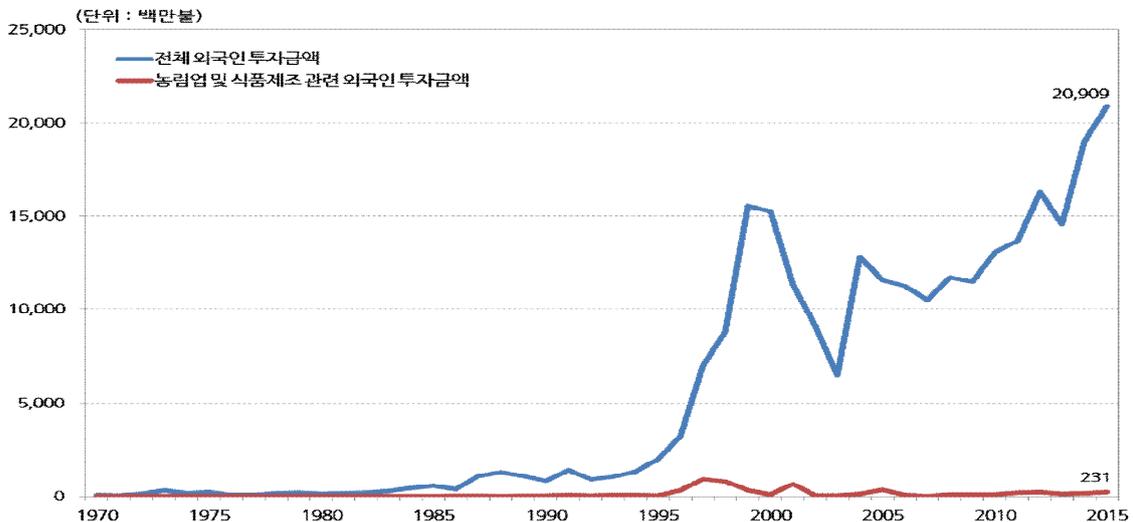
### □ 제조업은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나?

- 우리 제조업은 처음부터 수출을 지향했다. 이는 국제경쟁력 있는 품질의 제품을 국제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 또한 과감한 수입개방 조치를 단행했다.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 10 농정의 우선 순위는?

- 수입개방 없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험 안 봐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 이와 더불어 우리 제조업은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지속적인 고급화**를 실현했다.
- 농업은 맛과 안전 양면에서 고부가가치화의 여지가 큰 산업이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가장 고급화를 추구하는 산업이다.
- 한국 제조업은 ‘**의존이 가장 빠른 자립의 길이다**’라는 인식 하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자본, 기술, 기계설비, 마케팅 능력, 브랜드 등의 역량을 모두 외부에서 빌려왔다.**
-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한테 없는 모든 생산요소를 한꺼번에 세트로 빌리는 방법을 활용하였다(그림 3).
-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7천6백만불(‘70년) → 8억 3백만불(‘90년) → 130억 7천3백만불(‘10년) → 209억 9백만불(‘15년)
- 우리나라 농림업 및 식품제조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88만불(‘70년) → 2천7백만불(‘90년) → 1억 3백만불(‘10년) → 2억 3천1백만불(‘15년)

그림 3.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주 : 신고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 □ 농업,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이룬 것을 해 낼 의사도 능력도 없는가?

-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을 이룩해 낼 능력이 있는 같은 국민이 왜 농업과 서비스업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농업 종사자들이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특히 더 게으르거나 무능한가?

- 1960년대부터 농업에도 “제조업처럼 수출하라. 쌀 생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마음껏 돈을 벌어라. 네덜란드, 덴마크의 농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라.”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 농업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을 외국에서 빌려오지 않아도 된다.
  - 우리 농업에 있어 부족한 역량(자본, 기술,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브랜드 파워 등)이 국내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로도 충분하다.
- 내 생업 영역에 더 역량 있는 경쟁자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산업의 낙후를 면하지 못하게 한다.
  - 이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업종(소매업, 약국, 음식점, 운수업 등)에서 공통된 문제이다.

### 3)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 □ 농업의 기업화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 농민 개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경영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기업화**하면 된다.
  - 부족한 역량을 따로따로 대가를 주고 빌려 올 수도 있다. 제조업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더 많다. (다만 외국인투자보다 외자 차입에 너무 의존한 이런 방식은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 농민이 토지, 노동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재배** 등이 기업화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 가장 간명한 것은 경작 이외의 모든 경영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기업의 투자 유치이다.
  - 가장 확실하게 생산물을 다 팔아주고(수출까지 해 주고), 확실하게 경작의 대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업, 즉 가급적이면 더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대부분의 기업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재배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농업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농업을 해 보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가당한 일이 아닐까?
  - \* 예) 도울의 블루베리 농장, 다농의 요구르트 공장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농조합이든, 외국기업이든 무슨 상관인가?

## 12 농정의 우선 순위는?

### □ 농민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인가?

- 각자가 자신이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 우리 농민은 토지와 노동을 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거두고 있을 뿐이다. 기업이 농업을 하더라도 경작행위는 자연인인 농민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대가는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임금 채권의 우선권)** 만약 투자를 유치할 때 농민들이 취업을 보장받는다면 농민 소득은 더 증가할 수가 있다.
  - 기업이 자본, 기술, 마케팅, 경영능력, 브랜드 등을 투입하여 전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만 상응하는 대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뿐, 초과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대가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는 생산요소별 대가 수취의 우선순위에 서 노동은 최우선적 지위를 보장 받고 있는 반면, 경영능력, 자본은 가장 후순위가 기 때문이다.

### □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것은 자충수이다.

- 동부팜한농은 화옹반도 유리온실(국비 87억원, 기업 자체 부담 380억원 등 총 467억 원을 들여서 만든 45,000평 규모의 아시아 최대 유리온실)을 완공하여 연간 5,500톤의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전량 수출을 계획하였다.
- 그러나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내수 시장에 내어놓지 않겠는가 하는 이유로 상당수 농민들이 동부의 농자재 불매운동을 벌여 결국 동부팜한농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였다.
- 이후 유리온실은 농업법인 유일팜이 170억원을 주고 인수했으며, 사실상 방울토마토 수출을 거의 못하고 국내시장에 출하했다. 이로 인해 우려하던 국내시장 잠식이 발생했다.
- 위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농산물 수출이 공산품보다 쉽다?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과제를 더 잘 해낼 수 있다?
  - 성공할 때까지 버티면 성공한다.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 동부팜한농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수출이 여의치 않을 때 내수판매를 막을 힘은 없다?
  - 수출이 여의치 않아 내수판매를 시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어느 경우가 가장 막기 쉬울까?

- 수출을 해 낼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길은 가장 역량 있는 세계적 기업이나 수입국의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 그런 의미에서 LG CNS가 새만금 바이오 파크에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스마트 팜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대로 살 수가 없고 내수시장마저 점점 더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5. 결론 : 농업의 기업화의 진정한 의미

- 농업이 “보호”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상호 경쟁한다. 특정 품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개방하지 않아도 별 소용이 없다. 품목 간의 수요구조를 왜곡시킬 뿐이고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정부에 기대어서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다.
- 선택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호해 주려고 안간 힘을 써도 경제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소비자(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 팔 대책 없이 생산하지 마라.
- 열심히 대책을 세워 놓아도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팔 대책 없이 생산하는 것은 “업”이 아니다. 팔아야 “업”으로서 완성된다. 국민이 안 먹는 것을 정부는 사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이루어야 한다.
- 농사의 규모화가 아니어도 좋다. 토지 소유의 규모화가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경영 단위가 작아서는 (금융, 마케팅, 브랜드 등의) 바케이닝 파워가 생길 수가 없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조절도 불가능하다.
- 농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면 된다.
- 나라 걱정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농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면 된다. 전 세계에 팔아 낼 능력이 이미 있는 세계적 농기업을 투자 유치가 제일 이익이 아닐까?